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Fr. 김진열 가톨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집회 27.4-7

-[화답송]시 (◎2ㄱ참조)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네 의인은 아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론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제 2 독서] ------ 1 코린 15,54-58

[복음환호송] 필립 2,15.16 참조

-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6,39-45 [성가안내]

- 입당성가 [329] 미사 시작
- 봉헌성가 [219] 주여 나의 몸과 맘 다 바치오니
- 성체성가 [158]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 파견성가 [439] 부드러운 주의 손이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만물을 장소하셨음을 믿나이나.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र्वापि	복천
전 마지 마가렛 이 영우, 이 태묘 이 정진 안토니오 이 정진 안토니오 이 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김 금옥 최 순자 막달레나 최 순자 막달레나 최 순자 막달레나	가족 이 상홍 스테파노 유 경자 데레사 장 혜윤 크리스티나 주 바울라 정 리드비나 김 인수 안드레아 정 동주 유스토 장 수림 에피파니아
(48121KF	부없
이 영애 레지나, 이 조앤 그레이스 김경련 율릿다, 이진자 세실리아, 김옥지 아가다 윤동진 프란치스코, 김승애 글라라, 임영애 스텔라 김 정숙 프란치스카	김 현숙 그레이스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 이 영애 레지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2월27일	김진섭	김은아	이지연	김은아	양미숙	권민호	최예준
	야고보	미카엘라	안젤라	미카엘라	마리아	바오로	사도요한
3월6일	이지훈	박기목	민덕미	민덕미	Fr. Carolo	한창희	이지연
	아녜스	알버트	안젤라	안젤라	Sr. Timothea	바오로	안젤라

- 맨하탄 한인 공동체 설립 25주년 감사 미사
 - 2022, 3, 6,
 - 주례 : 작은 형제회 관구장 신부님 Fr. Kevin Mullan,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본당 주님 Fr. Thomas Gallger '한인공동체 초대 신부님' 김 기수 프란치스코 신부님 현 한인공동체 담당 김 진열 가롤로 신부님

모두 참석하셔서 25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 하시며 축복주신 하느님과 형제자매들과 축하와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재의 수요일' - 2022, 3, 2,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 미사'가 우리 공동체에서는 없습니다. 가까운 성당에 가셔서 미사 참여하시고 재를 받으시며 거룩한 사순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도 가능합니다.

- 2022 사순시기 '공동체 공동 보속'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 매주 공동체의 한 단체씩 주관을 하겠습니다.

- 3. 4 : 사목협의회 3. 11 : 청년회 3. 18 : 연령회 - 3. 25 : 성소후원회(양업회) 4. 1 : 울뜨레아 4. 8 : 꾸리아

● 김 진열 신부님의 면담이나 고백성사 원하시는 분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무실에서 가능하십니다. 전화로 미리 시간을 약속하시면 원활히 진행 됩니다.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 A

[단체모임 안내]: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방배정 먼저 확인하세요.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프란치스 룸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am~13:3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	교육관 2E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25주년 기도문

(1997. 3. 2. ~ 2022. 3. 6.)

좋은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하나 되도록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해 걸어온 맨하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 공동체가 설립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 (시편 127)는 말씀처럼, 지금 저희 공동체가 현존하고 있음은 당신의 은총 덕분임을 고백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하오니, 공동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애써 온 모든 형제들, 자매들, 수도자들과 사제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당신 나라 건설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당신 눈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소서. 또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태 5,13-14) 계속하여 당신의 좋으심을 증거 할 한인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늘 "감사하는 마음"과 "나눔과 함께 하는 정신"으로 "당신 안에 하나 되게"하시며,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을 본받아, 가는 곳마다 당신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동희(헬레나) 김용기(요셉) 지군자(스테파니) 정창동(폴리나) 진정은(마리아) 고종호(마태오) 이진자(세실리아) 박 명순 (모니카) 이병국 (요한)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2022년 2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의 사명과 용기에 감사하며, 우리 시대의 도전들에 대한 새로운 응답들을 끊임없이 찾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6,39-45)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의 복음은 '남을 심판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슴하셨습니다. 이 '눈먼 이'의 맹목현상 (blindness)은 신앙의 '무지'를 뜻합니다. 이것이비참하기는 자신이 '무지'한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남을 책망하고, 도리어 남을 가르치려고하고, 추하고 악하게 행동합니다. "위선자야, 먼저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남을 책망하는 행동에 앞서 악의 원인인 '무지'를 직시하라고 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보면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예를 들어 말씀하신 비유들의결론입니다.

오늘이 제1독서 집회서는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하여 가톨릭 교리서 2563항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음은 내가 존재하고 내가 머무는 거처 - 셈 족이나 성경의 표현으로는 '내가 내려가는 곳'이다. 마음은 우리의 이성이나 타인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숨겨진 중심이다. 그러기에 오로지 하느님의 성령만이 마음을 살피고 감지하실 수 있다. 마음은 우리의 심리적 성향의 가장 깊은 곳이기에, 결단을 내리는 자리이다. 마음은 우리가 삶이나 죽음을 선택하는 곳, 바로 진리의 자리이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은 서로가 만나는 자리이며, 계약이 체결되는 자리이다.

오늘2 독서 코린토 1서는 '부활 때 완성되는 인간 구원'이야기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빛 아래에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주인이신 성령의 속삭임을 알아 치리십시오. 결단의 자리, 진리의 자리, 계약이 체결되는 자리에서 하느님을 배우십시오. 그 신앙의 지식으로 좋은 열매를 만드십시오. 섣불리 남을 비판하려하지 말고, 고상한 말과 품위 있고 친절한 사랑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부정적인 생각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살기어떠세요?" 그런데 대답이 두 가지 였다고 합니다. 한쪽은 "살기 좋아요~ 공기도 좋고, 물도 맛있고, 서울에서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하고 다른 쪽은 "공기가 밥 먹여 주나요? 처음에는 시골 풍경이 볼만했는데 매일 똑 같은 풍경만 보고사니 지겨워 죽겠어요. 시골로 오자고한 남편이 미워 죽겠다"고 답했습니다.

생각은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 습관이 되면 좋은데,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불평해서 다른 사람의 입맛마져도 없애기 때문에 기피 대상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행을 가면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돈 들여서 왔는데 볼 거 없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는 분들, 일명 진상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전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습관을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로버트 오일러가 개발한 '고무줄 요법'입니다. 그는 팔목에 고무밴드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고무줄을 튕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 들더랍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는데, 그는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상상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오랜 습관에서 비롯된 것들이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사람들과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꼰대 유머 하나 소개합니다. 본당 신부가 자매님들과 주님께서 라자로 집에서 묵으신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일을 안 돕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언니 마르타가 성질을 부립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사셔야 합니다." 그러자 나이든 자매들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하는데, 젊은 자매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자매는 "제 생각으로는 주님이나 신부님이나 똑같은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신부는 "아이고 ~ 무슨 말씀을요~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두 분이 총각들이라서 여자 마음을 너무 몰라요! 마르타가 동생을 야단치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얼른 가서 언니를 도우라고 하셔야지 마리아 편을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장가를 못가셨지요!"